



CUSTOMS-INVESTMENT

[관세·해외투자] 관세·해외투자 규율 변화...기업 통상 전략의 재설계 시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美 관세 25% 압박,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생산 거점·공급망·투자 전략을 재편하도록 압박하는 산업 전략으로 기능하여 수출 기업에는 계약 분쟁·원산지 분쟁·형사 책임 등 복합적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대미 매출 의존도와 수익 민감도 분석, 원산지·통관 관리 체계 정비, 현지 투자 구조 검토 등 전략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투자 확대 속 관세·정책 변수...기업이 놓치기 쉬운 해외투자 및 수출 리스크

최근 해외투자 확대는 국제수지 흑자 확대와 맞물려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통상·정책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는 더 이상 시장 확대 전략에 그치지 않고 관세, 원산지 규제, 세무·통관, 계약 분쟁 등 복합적인 법적 리스크와 결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 지역의 통상 환경 분석, 관세 시나리오별 손익 점검, 세무·관세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 해외투자의 수출 전략을 법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CASE STUDY

최신 판결분석

외국투자가가 감면 결정 이후 취득한 지분에서 생긴 배당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투자 협상 관여자는 '상장사대리인'에 해당해 미공개정보 전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한·호주 FTA 협정관세 적용 시점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관한법에 기초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위법'

PROPOSED BILL

최신 시행·발의 법안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할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

미국, 인도,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 반덤핑 조사 적극 활용...국내 반덤핑 조사 13건으로 역대 최다

中, 해외 위안화대출 한도 2배 확대... 해외대출 규제 완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는 협상 수단, 투자는 전략 수단...마일 52조 프로젝트로 인한 한국 산업의 변화

GLOBAL LITIGATION

국제분쟁

쿠팡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SJKP, 美서 집단소송 제기한 이유는?

"1,600억 배상 뒤집혔다" 영국 법원, 엘리엇 국제소송서 한국 정부 손 들어줘

INSIGHTS

언론 속 대론

서울신문 등 8곳



대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 공식 출범...“전국 거점 밀착 방어”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범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으며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신문 등 2곳



법무법인 대륜, 중국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1일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국 베트남 진출 기업 위한 법률 분쟁 대응 및 투자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서울신문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추가 형사고소...“내부 관리 미숙·은폐 집중 지적”

법무법인 대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주식회사 쿠팡, 박대준 전 대표, 인종업 무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륜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했는데, 이후에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접수돼 추가 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월급 밀리는 순간 회생도 '꿀'...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골든타임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홀플러스가 창사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점포 압류와 채고 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당 법원 변호사는 회생의 '최악의 절림'인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CONTACT

신중수 T.070-7510-1046
최고총괄변호사

윤경원 T.070-5117-3709
최고총괄변호사

손계준 T.070-5117-3709
총괄변호사

방인태 T.070-7510-1822
수석변호사

명재호 T.070-7510-2016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김대륜 T.070-5221-2505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